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5호 (2002 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시에의 초대 □

어머니3

반 칠 환

새 핵기 때도 선상님 인사 못 가고, 오늘랑은 비가 와서 목 장사도 못 나가게
생겼으니 열 일 제치고 너 선상님께 인사나 갈란다.

아이참 엄마, 안 오셔도 된다니까.

안 가도 되긴! 자식 매겨놓고 얼굴도 안 비춘다고, 선상님이 속으로 욕하신다.
욕 안 하셔. 나말고도 부모님 안 찾아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찾아오
지 마아.

그래도 부모 인사차림이 그게 아니다. 니가 삼학년 일반 맞지?

나두 몰라.

불멘소리, 낡은 책가방 하나 행하니 사립문 없는 마당을 달려나간다.

애애, 저 봐라. 창 밖에 누구네 할머니 오셨다.

월요일부터 바뀐 계집애 짝지가 옆구리 쿡쿡 찢러 돌아다
보니 물 낱은 옥색 치마 저고리 하얗게 빨아 입은, 여름내
까맣게 탄 얼굴 더욱더 까매보이는, 손등이 껌질 벗기잖은
참낭구 꿩이자루 같은, 비가 와서 목장사를 못 나간, 예쁘게
화장한 시내 아이들 젊은 엄마들과는 너무도 다른, 선생님께
연신 허리 굽히며 아리랑 한 보루를 건네어 드리는, 너무나도
낮익어서 설고 부끄런, 쉰 살이 훨씬 넘은…….



통일의 서광이 동터온다

허 중 호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서광을 바라보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 있었던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폭격이 후, 5년 뒤에 우리 민족이 해방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될지 누가 꿈이나 꾸어보았을까? 철없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 우리 민족의 해방의 기쁨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새 온 세상이 떠들썩한 미국의 세계 무역 센터 건물 붕괴를 보면서 한가닥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천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시에 있는 세계 무역 센터 건물 붕괴는 머지 않는 장래에 우리 민족의 남북의 통일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내다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동안 너무나 가슴 아픈 반만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일입니다. 반만년동안에 얽힌 남북의 적대관계를 어느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천년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뉴욕 세계 무역 센터 건물 붕괴로 야기된 미국의 대테러 소탕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여성들은 교육의 자유가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였으며 여성 대학을 모두 폐지한 나라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발생한 테러 소탕전으로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은 새 정부를 통해서 박탈당한 여성들의 자유가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슬렘 교 산하에 억제 되어있는 여성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중동지역은 사실 가보면 알겠지만 99%가 모슬렘 교권 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슬렘 교 산하에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뉴욕 시에 있는 세계 무역 센터의 붕괴 사건에 때문에 발생한 인명 피해자는 진주만 폭격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 미국 국민에게 가슴 아픈 테러단들의 만행입니다. 미국의 국력이 움직이는 테러 소탕전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전쟁은 테러단 소탕전으로 테러단과 관련이 된 나라들을 계속 추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테러 국가 명단에서 그 이름이 제거되지 못한 북한의 입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가 된 줄 압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 보다 유엔 핵시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의 통일을 앞당겨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머지 않는 장래에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통일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32 회 · 목사)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예의



박 승 균

하 나

나침반은 북극점을 가리키며 바늘 끝을 가늘게 뿔고 있을 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침반의 바늘 끝이 흔들리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고장난 장난감일 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일을 삶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늘 파르르 뿔고 있는 얼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깃발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흔들리고 있을 때 자기의 존재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깃발이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내어 흔들리지 못한다면 형겅의 나풀거림일 뿐 자기의 존재 기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깃발은 가슴 벅찬 소망으로 존재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함성으로 흔들리는 것을 삶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온 몸을 흔드는 몸짓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짙는 도끼에게 향을 발라줌으로써 삶의 가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만일 향나무가 나무를 짙는 도끼자루가 된다면 그것은 부지깽이로도 쓸 수 없는 삭정이 일뿐 용서를 가르치는 향나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상처의 아픔으로 엮은 용서를 가지고 죽은 영혼을 달래는 향불로 거듭 태어날 자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파도는 긴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한 숨에 몰아 토해내는 충격으로 태어남으로써 존재의 근원을 찾아 떠날 줄 압니다. 파도는 먼저 바닷가의 돌들을 반듯하게 고르는 일로 존재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낮은 곳을 찾아 흘러 흘러 들어드는 일로삶의 맥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파도가 존재의 근원을 찾아 아래로 떠날 수 있는 파장이 되지 못한다면 파도는 그저 불거품일 뿐 거센 에너지가 되고 힘줄 튀어 오르는 변화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충격과 파장으로 돌에 온 몸을 부딪치는 모험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두 올

개구리는 논둑에서 밤새워 올 때 사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눈이 튀어나오도

록 목젓에 피가 나도록 울부짖을 때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울지 않는다면 아무리 봄이 오더라도 가슴 저린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개구리는 울음으로 존재의 업보를 달라고 있습니다.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고자 할 때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날기를 그치고 언덕에 앉거나 배부름에 취해 즐기고 있을 때 새는 날개를 잃은 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편안히 잠자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닐 때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간절해야 합니다.

세 엿.

사람은 떨림, 흔들림, 되갚음, 흐름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떨림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몸짓이며 흔들림은 소망을 이루려는 치열함이며 되갚음은 좋은 일을 이루다가 얻는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치료약이며 흐름은 존재의 시작을 지속해 나가는 처절함입니다. 분명히 삶에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다만 그 모습 속에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모양만은 닮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우주를 모두 살아갈 수 없으며 영원한 시간을 통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일이며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에서 가치 있는 것에 정성을 들이는 양을 많이 확보하여 사는 일 일 뿐입니다.

존재함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영역을 살다보면 돈의 많고 적음에 현혹되기 쉽고 지위의 높고 낮음에 유혹되기 쉽고 명예의 넓고 좁음에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성공과는 분명 차이가 나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함에는 편안, 편리, 빠름보다 더 가치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양의 세상살이라도 그저 살 수 없으며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가치 있는 삶”은 어렵고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딛고 서있는 땅과 처한 위치에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랍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굽을 뿐 결코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길게 누워 뻗은 좁은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넓은 그늘로 사람살이의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구불구불 성장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가꾸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9면에서 계속)

그때, 순자에게



김재옥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도 10여 년이 지난 그 때 나는 서울 변두리의 빈한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허울만 교사였었지 교사 임용 교사 공부를 할 때의 치열함과 합격자 발표가 나기 직전의 간절함은 물론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의 시명감과 자부심은 퇴색할 대로 퇴색하여 내 모습 그 어디에서도 '교사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던 나에게는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나 올해 새로 맡은 학생들이나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말썽꾸러기일 뿐이었으며 영철이나 희순이나 그저 모두 하나같이 공부시간에 떠들고 장난하는 장난꾸러기일 뿐이었다. 운동장에 내리찍는 3월의 햇살은 하루가 다르게 찬란한 빛을 더해 가고, 학교 뜰의 흙조차 부드럽게 촉촉해졌지만 나의 하루하루는 그저 어둡고 메마른 나날들이었다.

그러던 3월 희순의 어느 날 같은 부에 있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한 명(순자라는 학생)을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그러나 학교에는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 교사가 있었고 나 또한 어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상담에 대해 특별한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잘 할 자신도 없어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며 그 학생 또한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 하니 말아서 지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 날 수업이 끝난 후 수줍게 웃으며 순자가 상담실로 들어왔다. 순자는 나와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솔직하게 나의 물음에 답해 주었다.

“왜 학교를 자주 결석하니?”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순자는 어떤 일이 재미있는데?”

“오빠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요.”

“순자는 그러면 학교 안 다닐꺼니?”

“아뇨. 졸업은 하고 싶어요. 졸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순자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분 1분이 너무도 끔찍하게 더디 지나갔고, 나는 어떤 말을 언제 해 주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그저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관에 박은 듯한 충고를 할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와 순자는 내가 순자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질문할 말도 충고할 말도 찾지 못했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시간은 계속되었다.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말로 상담을 끝냈다. 그러나 나는 순자가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순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나는 너무 창피스러웠고 화가 났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아이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도 부끄러웠고, 멀리서 나를 보고 뛰어와 꾸벅 절하는 아이들이 한없이 고맙게 느껴짐과 동시에 그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음이 너무도 슬펐다. 나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인사하고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만했다.

교육 대학원 상담 심리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40이 가까운 나이에 15년 가까이 접어두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상담 심리학 책을 사서 밤새워 노트를 해가며 참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 공부가 나의 마지막 공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 결과 2번을 작성하고 본 대학원 시험을 한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 접해 본 상담 심리학은 철학과는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 심리학은 학교나 가정이나 그 밖의 인간 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고 문제의 발생원인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내게는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상담 심리학 공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으나, 공부를 하다 보니 학생들보다 나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성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되었다. 상담 사례 발표회에서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유용한 여러 심리 치료 기법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그런 나의 특성이 형성된 이유를 규명해 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나의 여러 특성들을-수치스러운 모습이거나 자랑스러운 모습이거나 간에-있는 그 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개방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내 성격 구조를 재구성시키는 일까지도 시도하였다. 또한 이론만의 죽은 상담 심리학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배운 여러 심리치료 방법 및 문제 해결 방법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실행해보았으며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전문가나 교수님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담가가 되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한 정신 분석을 6개월 가까이 받았고, 내담자의 섬세한 느낌과 순간 순간의 감정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 자신이 내담자가 되어보는 감수성 훈련과 개인 상담을 받았다. 학교 장면에서 여러 학생의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 상담 전문가 훈련을 받기도 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공부를 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코스를 밟기도 하였다. 교육 대학원생인 주제(?)에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공부하느냐는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공부한 결과 팔자에 없던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탁월한 상담가'라는 과분한 칭찬도 들었으며 정신 분석 담당 교수님으로부터는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이 매우 빠르고 깊게 진행되네!'라는 너무도 달콤한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5여 년 간 상담심리학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나는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사람들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내게 온 수많은 '순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만 보아도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야기하는 도중 잠깐동안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절망을 똑같이 공감할 수 있으며, 말소리의 억양이나 빠르기의 변화만으로도 내담자의 감정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학생들의 거친 행동에서도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찾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여학생의 오만하고 무례한 말투에서도 그 밑에 깔린 도움을 청하는 애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0여 년 전 소위 문제 청소년이라는 순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나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봄이 아직 먼 이 추운 계절에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영혼은 촉촉한 물기와 따뜻함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믿어주고 내게 도움을 요청해 주었던 순자야 미안하구나! 그리고 정말 고맙다.'
(49회 · 석판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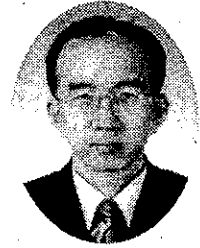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에 나타난 인간이해



이 장 형

인간에 관한 물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다른 철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윤리학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제 윤리학적 주제의 다양한 논의를 파생시킨다. 윤리학 체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 이해, 이와 관련된 덕(virtue)과 책임(responsibility) 등의 주제 등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관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철학적 인간론의 하나로서 그의 인간 이해를 고찰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니버에 관한 연구가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집중하는 책임윤리적 관점이나 충실한 기독교적 성서윤리의 실천가로서의 입장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즉 그의 인간관과 사회윤리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니버를 연구하였다.

첫째로, 니버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사회윤리 구상의 기초자로 정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그의 인간관을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현실주의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니버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그의 현실주의적 사회윤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인간관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불가능한 가능성'이란 역설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로, 니버의 사상은 사회윤리를 전개하는 그의 통찰력에 강점이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그의 인간관임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사회문제의 분석과 해결에 적용시키고 있다. 신학 및 철학계 등 지성사에 있어서 니버의 저서와 그에 관한 저작 및 논문들이 보여주듯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셋째로, 니버의 사회윤리구상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실성(relevance)에 주목해야 한다. 니버는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종교적 영향력에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 하면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교를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은 한국의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분단국가로 남아서 아직도 많은 국방 관련 비용을 서로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적, 계층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세계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및 테러의 위협, 생태학

적 위기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명의 가치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기인한 환경 파괴와 생명 공학 기술 등의 무기화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니버의 입장과 통찰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실성, 즉 적절한 적용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힘의 균형과 견제라는 과정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기술이나 정보, 법과 규칙 등의 제정과 운용이 의료진, 과학 기술진, 정부관료 계층, 시민단체, 특정기업 등 어느 한쪽에 집중되면 왜곡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사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과 통제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사회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즉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명, 환경, 의료, 전쟁 등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주제들에 대한 윤리학적 대안과 기준이 니버의 인간관과 이를 기저로 하여 적용된 사회윤리에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 있음을 필자는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니버의 사회윤리 체계는 그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윤리적 적용에 있어서는 힘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 및 견제와 균형의 강조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은 개인 윤리적 사유의 연장선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집단과 집단의 문제 및 힘의 요소가 더욱 분명하게 지배하고 있는 국제 관계의 문제 등에 있어서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대학원·천안대학교 교수)

(3면에서 계속)네 옛

나는 교사입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는 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최소한의 예외와 염치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우리가 교사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태도입니다. 돈, 지위, 명예, 물질적 풍요, 생활의 편리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는 일입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가꾸는 일입니다.

니만의 출세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으로 몰아치는 회초리꾼이 아니라 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등 따습고 배부른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이들과 손잡고 학교 정문을 걸어가는 교사의 뒷모습이 너무도 그리운 세월입니다. 함께 좋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의 진지한 얼굴표정이 너무도 보고싶은 세월입니다.

교사에게는 찬바람 분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일보다는 내 한 몸 등이 밀어 바람 부는 구멍을 막아내는 모습이 필요한 세월입니다. 교사에게는 불났다고 구경하며 소리치는 모습보다는 맨 발로 뛰어가 물 한 양동이 들고 오는 모습이 요청되는 세월입니다. 알고 보면 교사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랫동안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교사는 좋은 가치를 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일 뿐입니다. 집은 아래에서 위로 짓는 법이지만 교사의 존재가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세워지는 법입니다. (63회·우신고등학교 교사)

교사로서 찾아낸 정신

— 민족사관고등학교 교감 박 하 식 동문(50회)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력: 김범수(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과정)

아마도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먼 곳에 있는 분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설레임으로 채우기에도 힘든 시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강원도 횡성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오늘 인터뷰 할 사람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웬지 어렵고 힘들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아직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고속도로에서 본 학교 모습은 웬만한 대학의 규모를 넘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파스퇴르 공장을 가로질러야 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파스퇴르 유업의 노동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염두에 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입구부터 그 학교는 뭔가 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감으로 있는 동문 선배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사무실에서 교감 선생

님으로 있는 박하식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선배의 모습에는 날카롭고도 인자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보는 얼굴이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주 짧지만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서로의 첫인사는 명예 교수님에 대한 안부로 시작되었다. 가벼운 인사가 끝나고 박하식 선생님은 곧바로 자신의 얘기를 시작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같았다. 박하식 선생님은 인터뷰를 해야 하는 나를 오히려 이끌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나는 아주 가벼운 얘기부터 질문을 던졌다.

#학창시절

- 학창 시절에 어떤 분들과 친하셨나요?

- 77학번 동기들로 강성식, 박경신, 김인석 이런 사람들과 친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졸업 후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식이와 인석이와 독일로 유학가는 바람에 서로 연락하고 얼굴 보

기가 힘들더군요.

-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 학교 다닐 때요?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76년도면 유신시대였죠. 우리 학교가 기독교학교였고, 그래서 그런지 온건한 사람이 많아서 그 암울한 시기에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중 철학과 학생들은 진리 탐구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천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한 일이 4·19 제사를 지냈죠. 학생처장님이 와서 말리더군요. 징계를 당했습니다. 매일 같이 반성문을 썼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했는데 이 시대에 비판도 하지 못하는 젊은이로서, 철학도로서 자신을 모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생각 없이 살지는 말자고 얘기를 나누었죠. 그때 제일 친했던 동기들 박경신, 김인석, 강성식... 이런 친구들과 같이 고민을 했죠.

그때는 7명만 모여도 학생처에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6명이 모여서 로타리 다방에 모여서 데모는 할 수 없을 것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학교 게시판 앞에서 무릎꿇고 기도를 하자고 결의를 했죠. 중간 고사 기간쯤으로 기억됩니다. 시국 기도를 하자고 한 날 문리대 앞에 모였습니다. 12시에 기도하기로 했죠.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다리도 저리고,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당시



박하식

체육과 최남신 선생님, 그리고 조의숙 선생님이 오셔서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대충 그렇게 헤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흘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에도 모였죠. 마침 비가 왔었습니다. 더 고생스러워져서 그런지, 더 학우들의 관심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학우들은 원기하는 기분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좀 달랐죠. 그 다음부터 서로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진 경찰서에 수배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학생처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배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 저는 구미로 도피했습니다. 그 때 박경신 선배는 잡혀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별것(?)도 아닌 일에 투사가 되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4학년 때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찾아온 80년에는 후배들이 자문을 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투사로 소문이 났으니깐요. 하하.

교직생활

박하식 선생님의 얘기는 무척 재미있었다. 아마도 동문 후배를 만나서 오랜만에 꺼내보는 추억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학교 얘기는 대충 정리하고 곧바로 교편 생활에 관한 질문을 시작했다. 교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참으로 많은 말을

해주셨다.

- 어떤 동기로 표편을 잡게 되셨습니까?

- 철학과 선배들처럼 나도 목회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감리신학대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승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76년 혼란했던 시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때까지 여전히 목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교생 실습을 나가서 생각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죠. 영락 중학교로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목회보다 소중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순위고사가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락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 민족고등학교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81년 영락고등학교에 부임하고 87년부터 96년까지 현대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의를 받았죠. 섬머힐처럼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뭔가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여기에는 있었죠. 그래서 97년도에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족 사관 고등학교에 대해서...

-신문으로 접하기도 했는데 한동안 이 학교가 힘들었고, 심지어는 문을 닫을 뻔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었죠?

-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러니까 98년에 민족사관 고등학교 모기업인 파스퇴르가 부도를 냈습니다. 이 학교는 수업료도 없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역시 무료입니다. 선생님 봉급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구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파스퇴르에서 출자했습니다. 그 기업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학교가 힘들어진 것이죠.

-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벗어나서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나요?

- 그 당시(파스퇴르 부도 당시) 선생님이 스물 다섯 분 있었는데, 학생들은 전학하면 되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사 회의를 통해서 새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몇 달 동안 봉급 없이 지내자고 했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제출해서 우리는 학교를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자 학생들이 동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학부모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살리자는 시위를 했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채권단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명재 회장이 부도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그런 것이

라고 이해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준 것이죠. 채권자들이 오히려 최명재 회장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회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으로서

-제가 일간지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민족사관학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뷰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학교 홍보 역할도 하시고요. 다른 학교에서 하는 교감 선생님의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교감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허허.

아무래도 국내에 이런 시스템(영재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에 다 있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죠. 교무실과 교실이 없습니다. 전 교생이 현재 198명인데 교사는 58명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수업은 우리 학교에서는 거부합니다. 변화가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이고 실천적인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가급적이면 미국 사립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자의 아이티엄을 구체화시키려는 실천적인 방안을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얼마 전 신문에서 민족사관학교가 아이비 리그에 여러 명 합격시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은 미국 현지와 다를 바가 없다. 정규 시간을 미국 사립 고등학교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컬리지 카운셀러 역할을 고 3 담임 선생님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입학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하니까 충분히 아이비 리그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하버드, 콜럼비아, 영국의 옥스퍼드까지 곳곳에 우리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영재교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까?

-교육의 방법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끌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섬머힐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획일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 해야할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냐 아니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따르게 할 것이냐 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부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관리가 아닌 창의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은...

-창의성은 관리 중심 교육이라고 해도 수업시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학생들이 교사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과 교사가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발성과 창의성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사(史)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식민지 사관에 대항하는 민족사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로컬로서 글로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화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체성과 우리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이 로컬의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일 대학교 입학한 민족사관고 출신 학생은 내가 여기서 이것을 공부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민족사관을 공부해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가

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혼정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박하식 선생의 얘기는 정말 끝이 보일 것 같지가 않았다. 1시간을 얘기하면서 대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박 선생님은 무척 자신감에 넘쳤고, 오랜 고민 끝에 얻어낸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 그러던 그 선생님도 단 하나의 질문에 다소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 얘기였다.

민족 사관 고등학교는 황성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주말에나 만날 수 있다. 그나마 박하식 선생님은 요즘 한 달에 한 번밖에 가족을 만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 말에 무척 계면쩍은 얼굴이었다.

박하식 선생과 교육 문제로 한참을 얘기했지만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았다. 동문 선배를 찾아간 것인데, 너무 개인적인 관심에 치중해서 교육 얘기만 한 것 같았다. 선배님도 헤어지기 아쉬워서인지 자상하게 학교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주셨다. 개인적으로 민족 사관 고등학교의 시설을 보면서 이런 시설이 모든 고등학교에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다.

헤어질 준비가 채 되지도 않았지만 먼 길이라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신 선생님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문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나지는 약속도 했다. 서울로 오는 길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길었다.

동 문 회

I. 부음소식

▶ **송실대학교 철학과**의 영원한 스승이신 **조요한** 선생님(철학과 명예교수)이 3월 4일 오전 3시 30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요한 선생님은 함북 경성 태생으로 송실 재건 초기인 54년부터 철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셨다. 1980년 '지식인 103인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84년 복직하기도 했다. 또한 89년 5대 송실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예술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등이 있다. 고인의 사망소식은 각 일간지에 앞다투어 실렸으며, 모든 일간지에서 생애동안 깨끗하게 유지했던 선비 정신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유족으로 장남 경진(서울 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경덕(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씨가 있다.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II. 동문 소식

▶ **이만신** 동문(35·서울중앙성결교회 원로 목사) 지난 12월 1일 제4회 송실인상 시상식에서 수양목회대상을 수상하였다. 송실인상은 1997년 제2의 창학정신으로 모교를 빛낸 각 분야의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박삼열** 동문(60회·관동대 겸임교수) 철학연구 55집 2001년 겨울호에 "스피노자의 속성 개념"을 철학70집 2002년 봄호에 "라이프니츠의 현상론"을 게재하였다.

▶ **이장형** 동문(대학원·목사) 3월 1일

부로 천안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임용되었다.

▶ **명현수** 동문(64회) 지난 2월 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신부 최종심 양과 화촉을 밝혔다.

▶ **이종원**(65회)·**김영이** 동문(61회) 지난 12월 22일 하나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권일훈** 동문(67회) 1월 6일부터 사당동 소재 성광 교회에서 강도사로 부임하였다.

▶ **강신철** 동문(67회) 지난 1월부터 수원명선교회에 전임전도사 부임하였다.

▶ **장덕상** 동문(67회·강도사) 지난해부터 동문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 **한호석** 동문(71회·목사) 2년 전부터 칼빈 신학 대학 교목실에서 사역하고 있다.

▶ **철학과 동문회**는 1월 10일(목) 오후 6시 봉천동 청솔 뷔페에서 임오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여윤택 목사의 새해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신년하례식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 **한석환** 교수(서양고·중세철학) 2002

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연구년을 맞이하여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 체류하게 되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Prof. Dr. Seok-Whan Hahn
Kreuzlinger Str. 19 D-78462 Konstanz
Germany.

II. 학과 동정

▶ 철학과에서는 2001년 12월에 『思索』 17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김기순 교수 정년퇴임과 이삼열 교수 화갑 기념으로 발간되었다. 『思索』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동문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 12월 27일 김기순 교수 정년퇴임 및 이삼열 교수 화갑 기념 논문 증정식이 있었다.

▶ 2001년 2월 15일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는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3월 새학기에는 2001학년도에 입학한 역사철학과군 학생들 중에서 29명의 학생이 2학년으로 배정된다. 또한 올해도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3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받게 된다.

▶ 철학과로 2002학년도 제 1학기에 박동희, 정준홍 씨(이상 학사)와 김은혜, 이정아, 김주현, 김혜연, 박민선, 박광영, 김계환, 김경범, 이태경, 오상현 씨(이상 일반)가 편입시험을 통해 새로 들어온다.

▶ 2002년 2월 15일 거행된 학위수여식에

서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박사 3명 석사 3명을 배출하였다. 박사 학위는 박상선 씨(50회)가 “리오타 철학에서 아방가르드 개념”, 이장형 목사(대학원)가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인간관 연구”, 이홍우 씨(대학원)가 “근대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감정부각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위치와 능력에 관한 고찰”로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석사 학위는 배기훈 씨(69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과 운에 대하여”로, 채규식 씨(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증명에 대한 고찰-『반이교도대전』 1권 1장에서 13장을 중심으로”로, 문영식 씨(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본질과 속성”으로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 3월 4일 역사철학과군으로 73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었다. 역사철학과군에 소속된 73명의 신입생은 내년 1월에 철학과나 사학과로 배정하게 된다.

▶ 대학원에서는 10월 19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가 있었다. 박상선 씨(50회)가 “리오타 철학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이장형 씨(대학원)가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인간관 연구”를, 그리고 이홍우 씨(대학원)가 “근대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감정부각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위치와 능력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 10월 22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가 있었다. 문영식씨(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본질과 속성”을, 배기훈 씨(69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과 운에 대하여”를, 백두환 씨 (72회)가 “정신에 대한 물리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그리고 채규식 씨 (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증명에 대한 고찰 — 『반이교도대전』 1권 1장에서 13장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 조종남 동문 (30회 · 명지학원 선교원자)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8-28번지 부영그린타운 2차 604호

▶ 박하식 동문 (53회) [직장]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민족사관고등학교 전화 033)343-1115

장덕상 동문 (67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301동 1104호

▶ 이태영 동문 (54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 6동 1685-1 한국요가연수원 888-5087

▶ 강성식 동문 (55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삼익가든아파트 8동 207호
자택 : 426-9930

▶ 김충현 동문 (59회 · 목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2-8 사택
휴대폰 : 019-353-0318

▶ 최의경 동문 (61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 1동 주공 4단지 아파트 425동 508호 휴대폰 : 017-679-8522

▶ 박승균 동문 (63회 · 교사) 서울시 구로구 궁동 171-1 동양빌라 가동 301호

▶ 최효원 동문 (65회)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441 자택 031)333-9307

▶ 이종원 (65회) · 김영이 (61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43 201호

▶ 장세철 동문 (67회) [직장]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3층 안산시립국악단

▶ 강신철 동문 (67회 · 전도사)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517-1 삼일빌라 1동 501호 031-206-0133

▶ 배한진 동문 (67회 · 기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4-2 현대아파트 103동 901호

▶ 한효석 동문 (71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142-12 칼빈신학대학 교복실.

▶ 심혜련 동문 (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14-12 전화 3473-0813

▶ 최한우 동문 (75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50-30 B01호

▶ 김용준 동문 (75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52-2004호

▶ 김은정 동문 (75회)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장미아파트 103동 301호

▶ 김은진 동문 (75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대농주택 라동 102호

▶ 김하윤 동문 (75회) 서울시 양천구 신정 5동 930-18

▶서은지 동문(75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38 중앙그린빌라 301호

▶오재준 동문(75회) 서울시 양천구 목5동 목동아파트 309동 701호

▶김부중 동문(75회)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00-49

▶유지영 동문(75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48-1 마석우리 대림아파트 106-802

▶양다진 동문(75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6-12 보성넥스빌 301호

▶황경옥 동문(75회) 경기도 광명시 주교2단지 217동 405호

▶김권영 동문(75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6

▶김신웅 동문(75회)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296-36

기 타

I.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지금 모교에서는...

▶2002년 2월 27일에 열린 학교법인 송실재단 이사회에서는 어윤배 총장의 사표 수리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였다. 이사회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이종 교

수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다. 이중 신임 총장 결정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은 많은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송실대학교에 있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III. 찬조에 감사합니다.

이승하 회장님(해방교회 담임목사)과 박근용 증경회장님(송실재단 이사), 이장형 교수님(전안대 신학부)께서 찬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문회원 여러분께서 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간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5호 (2002 봄)
2002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김 범 수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